

그 곳에서 근대문화가 싹텄다.

한국관광공사, 유적여행지 5곳 선정 발표

한국관광공사는 '근대 문화유적을 찾아서'이라는 테마하에 2010년 2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인천 개항 120년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인천광역시 중구)', '서울 한복판에서 대한제국의 흔적을 만나다(서울특별시 정동)', '근대문화유산, 군산의 '그' 날을 이야기하다(전라북도 군산)', '황금어장 구룡포의 100년 전 골목여행(경상북도 포항)', '금강변에서 넉넉하게 즐기는 빈티지풍 시간여행(충청남도 논산)' 등 5곳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인천 개항 120년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행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일원

인천으로 떠나는 근대문화유적 답사는 '최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기도 하다.

특히 인천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구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최초'의 것들이 남아 있다.

중구 내동에 위치한 내리교회와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은 중구 송학동 응봉산 자락에 위치한 자유공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니지만 인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도 중구 답동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천과 노량진을 오가던 경인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이며, 남너노소 누구나 즐겨먹는 자장면 역시 중구 선린동과 북성동에 걸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물론 최초의 것만이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인들의 사교장이었던 제물포 구락부와 일본은행거리 그리고 인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이나타운 등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들이다.

문의 : 인천시청 관광행정팀 : 032) 440-4042, 인천중구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팀 : 032) 760-7820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대한제국 덕수 정동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서소문 일대

가족이나 연인끼리 대한제국의 흔적을 따라 걸어볼까하다.

근대의 현대를 잇는 덕수궁과 정동길 산책은 덕수궁-시립미술관-정동교회-정동극장-이화학당-경교장-홍난파 가



◆군산세관 전경.

옥-중립동 약현성당 순으로 하루코스로 걸어 다니기에 좋다.

정동길을 따라 경향신문사까지 이르는 정동길은 서울에서 산책하기 좋은 거리로 손꼽히는 곳이다.

주변에는 덕수궁을 비롯해 구 러시아 공사관, 중명전, 정동교회 등 개화기에서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를 관통하는 유서 깊은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뿐만 아니라 한 세기가 지난 지금은 역사의 흔적을 뒤로하고 정동극장,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이 있는 문화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덕수궁 돌담길은 약 1.5km에 불과하지만 서울의 가장 낭만적인 길로 꼽힌다.

덕수궁 돌담길과 정동길엔 언제나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이 있다.

덕수궁 돌담길에서 정동극장-이화여고-경교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서울에서도 특별하다. 더불어 정동 일대는 아이들과의 역사 탐방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구한말 역사적 사건들이 거의 이 길을 따라 일어났음을 기억한다면 가벼운 산책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근현대사 체험학습으로 나들이를 겸할 수 있다.

문의전화 : 서울 중구청 관광공보과 02) 2260-2174

곡물 수탈의 관문-군산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일원

호남 곡창지대의 쌀이 모이는 전북 군산은 일본강점기, 수많은 일본인으로부터 수탈당했던 민족의 아픔이 담긴 곳이다. 우리 민족으로부터 빼앗은 부의 축적과 저항의 기록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것은 당연할 터.

유유히 흐르는 금강을 따라 그날의 기억이 담긴 장소들을 살펴보자.

일본인이 군산의 쌀로 부를 축적했던 공간은 내항 일원과 월명산 아래다.

구)조선은행과 구)군산세관, 히로쓰가옥, 동국사 등이 그곳. 한국인들의 흔적은 일본인 거주지역 박인 구암교회, 이영춘가옥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암교회는 28번이나 일어났던 3·1만세운동의 중심지, 이영춘가옥은 소작인들의 건강을 살피고 민간의료보험, 학교 급식, 양호교사 등 다양한 의료복지를 실행했던 이영춘박사의 공간이다.

군산시가 만든 구불길을 따라 걸으며 근대문화유산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도 누리보자.

문의전화 :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063) 450-6110

황금어장 구룡포의 100년 전

위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겨울철 별미가 많은 고장 포함에는 100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동네가 있다.

과메기가 바람결에 춤을 추는 구룡포

장안동 골목으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일제 강점기 때의 건물들이다.

일본인 집단 거류지로 요릿집과 세탁소, 치과 등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호황이었던 구룡포에 남아있는 건물과 흔적만으로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구룡포항이 한눈에 들어오는 구룡포 공원에 올랐다가 구룡포 해수욕장을 지나면 호미곶이다.

호미곶 광장에서 새로 생긴 새천년 기념관에 올라 상생의 손과 인사를 나누고 포항시내로 이동해 죽도시장에서 개북치에 고래 고기, 상어고기 싹컷 구경한 후 싸고 맛있는 물회 한 그릇을 먹으면 속이 시원하다.

포스코 박물관과 보경사 경내, 내연산 계곡 구경도 잊지 말자.

문의전화 : 포항시청 관광진흥과 054-270-2253

금강변에서 즐기는 시간여행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일원

논산의 본디 이름은 누런 빛깔의 땅이 많아서 '눌피'라고 불렀다. 1914년 일제 강점기 때 한자식 표현을 빌려 '논산'으로 변경됐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이는 실정이다.

논산시에는 북옥감리교회, 구 함일은 행 강경지점, 구 남일당한약방,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 구 강경공립상업학교 관사, 구 강경노동조합, 연산역 급수탑

등 모두 7개의 등록문화재가 남아 있다. 이 가운데 연산역 급수탑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찻길로 유명한 강경읍내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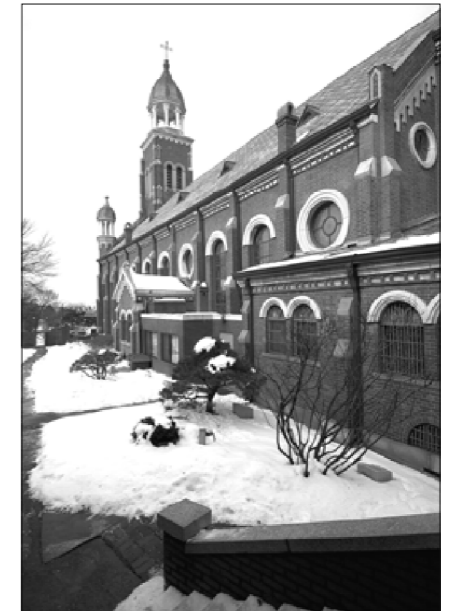
등록문화재들은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일제강점기의 시대상과 흘러간 시절의 향수가 풍성하게 담긴 빈티지풍의 사진을 찍으려는 디카 동호인들이 즐겨 찾기도 한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이발소, 다방, 가게, 폐가 등의 거리 풍경도 하나같이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다.

문의전화 : 논산시청 관광과 041) 730-3224



◆구룡포 정안동의 일본인 거리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담동성당.



현대홈타운

지금 방송중...

당신의 행복드라마...

한데 곱라운 - 당신과 당신 가족의 행복한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행복한 주인공, 아름다운 공간 - 당신과 당신 가족은 그 안에서 행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드라마 - 한데 곱라운이 그 무대가 됩니다

